

## 십자가의 길

회중은 예배시간에 조용히 모인다.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예배의 목적은 단순하고 우리 주님의 우울함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여정: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 — 누가복음 22:39-44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완벽한 신이지만 사람이기도 한 예수께서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짧은 기도

두 번째 여정: “예수께서 체포되시다” — 마태복음 26:47-56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칼과 무력으로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려한 제롯당  
소속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인류 역사에서 무력과 전쟁은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  
되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할 수 있음에도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폭력과 무력이 수단이 되지는 않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무력과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짧은 기도

세 번째 여정: “산헤드린이 예수를 시험하다” — 마가복음 14:61-64

예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는다.*

*예수께서 내가 그라고 대답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혹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인지 묻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기독교인들인가?*

짧은 기도

네 번째 여정: “예수를 시험하는 빌라도” — 요한복음 18:33-37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가? 예수가 왕이 되시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가?*

짧은 기도

다섯 번째 여정: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 선고” — 마가복음 15:6-15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일주일 전 예수를 메시아라고 반기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게 뒤돌아섰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다. 우리는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이었던 적은 없는가? 빌라도였던 적은 없는가?*

짧은 기도

여섯 번째 여정: “예수는 가시 면류관을 쓰다” — 요한복음 19:5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영어로 가시 면류관은 The crown of thorns 이다. 즉 가시로 만든 왕관이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 이 세상을 넘어선 나라의 왕이신 예수에게 조롱과 모욕을 주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원하는가?*

짧은 기도

일곱 번째 여정: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다” — 요한복음 19:17-18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쓰인 나무의 무게는 약 140 킬로그램이다. 수 시간 동안 채찍질을 받고 피를 흘리며 고난을 겪은 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140 킬로그램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다. 온전히 사람이셨던 예수께서 분명 하나님께 이 고난을 버티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각자 현재의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한다.*

짧은 기도

여덟 번째 여정: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시몬” — 누가복음 23: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에 있는가? 시몬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가?

짧은 기도

아홉 번째 여정: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다” — 누가복음 23:27-31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를 뒤따르던 여자들은 큰 슬픔 속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가족 혹은 친구를 잃었을 때 슬퍼하고 통곡한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길 힘을 위해 기도하라.*

짧은 기도

열 번째 여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 누가복음 23:33-34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찬 군중들을 향해,*

*예수는 용서하기로 하셨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때 기도는 하지 않고 조용히 개인 묵상만 한다.)

열한 번째 여정: “범죄자들이 예수께 말하다” — 누가복음 23:39-43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범죄자 중 하나는 예수를 조롱했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께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고 회개하기에 늦은 죄는 없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짧은 기도

열두 번째 여정: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다” — 요한복음 19:25b-27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마리아를 돌볼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라 부탁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 한 가족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부모 혹은 자식은 누구인가?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가?*

짧은 기도

열세 번째 여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 요한복음 19:28-34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 형을 영어로 *Crucifixion*,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Excruciating* – 라틴어  
*excruciatu*s 를 기원으로 하며,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라 한다. 세 시간의 극심한 고통 후에,  
 예수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것들을 묵상해보라.

#### 짧은 기도

열네 번째 여정: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다” — 요한복음 19:38-42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로마법에 따라 왕을 사칭해 반란을 도모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선고되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의 시신을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 받아 장사를 치른 사람이다. 자신의 무덤에 몰약과 침향을 섞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는 묻히셨다. 동방정교회의 전통의 예수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기도

(기도가 끝난 후, 조용히 집으로 되돌아 간다.)